

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 ::::: 기사

jejumbc.com/article/k6s5vly3RpXluGhZ_M

조인호



뉴스데스크

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

01:18

-02:40



◀ 앵 커 ▶

제주에너지공사가

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던 곳에서

세계적인 멸종위기식물들이

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.

제주도가 꽃자왈 중에서도

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분류했던 곳인데,

환경조사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

나오고 있습니다.

조인호 기자입니다.

◀ 리포트 ▶

제주 동부의 용암대지에

울창한 난대림이 펼쳐진 꽃자왈.

도유지인 꽃자왈 한복판에

풍력발전기 15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

제주에너지공사는 근처에

발전기 4개를 추가로 설치해

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.

이 곳이 어떤 곳인지 가봤습니다.

용암이 굳은 땅 위에 빗물이 고인 습지.

연꽃처럼 생긴 수생식물들이 자라고
있습니다.

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
순채입니다.

숲 속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?

나무 밑을 들춰보니 키가 10cm도
안 되는 조그만 식물들이 눈에 띕니다.

세계적으로 제주에서만 발견되는
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,
제주고사리삼입니다.

◀ INT ▶ 김정순 / 꽃자왈사람들 공동대표

"뜨거운 빛은 일단 피하는 성향, 그렇다고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안 되는 곳, 보통 반
음지식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."

◀ st-up ▶

제주 고사리삼 자생지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런 깃발이 서있습니다. 풍력발전
기를 설치하기 위해 측량을 한 흔적인데요. 발전기가 설치되면 자생지도 곧 사라질 수 밖
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꽃자왈사람들이 조사한 결과

이 곳에서는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외에도
백서향과 새우난초 등 멸종위기와
희귀식물 13종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.

하지만, 제주도는
이 곳을 개발이 가능한
생태계 4-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.

◀ INT ▶ 김정순 / 꽃자왈사람들 공동대표

"생태계 등급 조사 과정에 꽃자왈 지역이 제대로 만약 조사가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
4-1등급이 아닌 (개발이 불가능한) 1,2등급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부지이거든요."

제주에너지공사가
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하기 위한
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
꽃자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
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

MBC뉴스 조인호입니다.

◀ END ▶

조인호
hints@jejumbc.com

